

# 꼭 막힌 백운광장 3년 뒤 뱅 뚫린다

## ■ 백운지하차도 기대 효과와 과제

### 침수·화재 등 사고 대비

### 안전 설계·시공 이뤄져야

광주의 대표적인 교통혼잡 구간인 백운광장 고가도로가 철거되고 그 자리에 지하차도가 착공되면 도심 차량흐름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도심의 통과하는 지하차도라는 점에서 침수와 화재 등 안전사고가 일어날 경우 자칫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설계와 시공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루 1만1천여대 통행=백운교차로는 독립로와 대남대로, 서문로, 봉선로, 회재로 등 5개의 도시·간선도로가 교차하는 곳으로, 상습차량정체 구간으로 꼽힌다. 여기에 조만간 남구청 신청사가 문을 열면 청사 출입차량만 하루 1300여대를 이룰 것으로 보여 차량정체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사 입주 전인 6일 현재 백운광장 교차로의 차량 평균 통행량은 오전 출근길 8~9시를 기준으로 하루 1만1253대가 통행하고 있고, 오후 퇴근길 6~7시에는 1만5500대 수준이다.

이 때문에 백운 교차로에서 교통신호를 2~3차례씩 기다리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시는 백운 고가도로를 걷어내고 지하차도를 뚫을 경우 시간당 차량 1만3000대를 처리하고, 차량 1대당 대기시간 86초, 혼잡 시간 때 대기행렬 56~227m 등으로 교통 혼잡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침수·화재 등 안전은 문제없나=일부에선 백운 지하차도가 광주·전남에선 가장 긴 840m로 건설됨에 따라 집중호우 시 침수와 교통사고에 따른 차량화재 사고 등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장미철이면 광주 농성·송정지하차

도 등이 자주 침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하차도 내 교통사고 화재에 따른 유해가스 방출 사고 등 제2의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안심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폭 20m 이상 지하차도는 모두 11곳으로, 상습침수 차도로 지목받은 농성 및 송정지하차도는 준공시기가 동일인 1988년으로 25년이나 지난 오래된 지하차도다.

당시에는 최근처럼 집중호우 등에 대한 설계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탓에 배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후 집중호우 등을 예측해 건설된 9개 지하차도에선 일부 배수펌프가 오작동을 일으켜 일시적인 침수를 겪은 사례는 있지만, 상습침수 현상이 발생한 사례는 없다.

광주시는 백운 지하차도의 경우 도심을 관통하는 만큼 배수시설 기준을 가장 높은 수준인 홍수 빈도 150년 이상으로 설계하고, 차량사고 등에 따른 화재에 대비한 시설도 강화할 계획이다. 백운광장 지하차도의 경우 광주·전남에선 최장이지만, 전국적으로는 중간 규모에 속해 건설시 침수나 화재방지 시설 설치 등 기술적인 부분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지난해 개통된 세종시 국도 1호선 우회도로 내에 있는 지하차도가 국내에서 가장 긴 2.8km이며, 서울 남부순환도로 신원교차로-오류 교차로 지하도로도 1km가 넘는다. 이들 지하차도에서 상습침수나 화재 등 안전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술의 발전으로 지하차도를 강이나 바다 밑으로 뚫더라도 침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백운 지하차도)완공 후엔 안심하고 이용해도 된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 “문화전당 개관 프로그램·콘텐츠 개발 서둘러야”

## 문화수도 지원 포럼

### 고용창출 효과에 의존

### 전당 인력채용 때

### 지역민들에 기회 줘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의 핵심운영 체제인 개관 콘텐츠 구축사업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는 2015년 문화전당 개관에 차질을 빚지 않으려면 콘텐츠를 미리 마련해 장기간 준비하고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야 함에도 현재까지 콘텐츠의 윤곽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6일 광주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 포럼’(위원장 강운태 광주시장)에 참석한 위원들은 “문화전당 개관에 맞춰 개관 콘텐츠 개발을 서둘러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거듭 주문했다. 문화전당은 창조원, 정보원, 예술극장 등 5개원으로 구성되며, 그 콘텐츠 개발은 5개원의 전시·공연 프로그램을 짜고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강운태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콘텐츠 개발 시간이라도 나와야 광주시가 함께 고민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개관 프로그램이 전당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천득염 부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도 콘텐츠 구성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콘텐츠 개발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일부 위원들은 문화전당이 광주에 세워지고 있으나, 지역 내 고용창출 효과는 적다고 주장했다. 신경우 광주국제교류센터 센터장은 “문화전당에 근무할 인력양성이 중요한 과제지만, 최근 전당의 인력채용이 타지역 출신에 편중되고 있다”며 “문화전당에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기회를 넓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문화전당 콘텐츠 구축 과정에서 토착화(광주에 전당이 뿌리를 내리는 것) 방안이 소홀히 다루



“콘텐츠 개발 시간이 없어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포럼이 6일 광주시청 3층 상황실에서 열렸다. 80여명의 참석위원들이 강운태 광주시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기훈 지역문화교류재단 상임이사는 “2013년까지 진행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예산 가운데 국가에 산으로 확정된 전당 건립비 7000여억 원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광주시가 확보해야 할 예산이라며 이에 대한 대비

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콘텐츠 개발작업을 이달 안으로 마치고 오는 4월1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에 보고한 뒤 국제컨퍼런스를 계기로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을

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단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문화전당 5개원 가운데 하나인 아시아 예술극장을 아시아 현대공연예술 창작 중심 극장으로 운영하기 위해 올해 예술 감독을 선임하고 개관 축제 및 시즌작 기획을 완료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창조원에서는 올말까지 개관 전시콘텐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시아 문화정보원은 아시아 이야기, 의식주, 음악, 무용 양각화 수집 및 문화자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제1회 광주일보배  
**전국 여자 아마추어 골프대회**  
2013년 4월 15일(월) 13:00

- 접수기간
  - 2012. 03. 18 ~ 03. 22 (1차 접수일)
  - 2013. 03. 25 ~ 03. 29 (미달시 2차 접수일)
- 접수방법
  - 합평다이너스티CC 홈페이지(www.hpdynastycc.co.kr)
- 특 전
  - 가. 신페리오우승(1명)
    - 1년간 합평다이너스티 주중 그린피어제, 주말회원대우
  - 나. 메달리스트
    - 1년간 합평다이너스티 주중 그린피어제, 주말회원대우
  - 다. 신페리오준우승(1명)
    - 1년간 합평다이너스티 주중 회원대우, 주말회원대우

주 최 | 합평다이너스티CC  
주 관 | 광주일보  
진 행 | KPGA정회원  
후 원 | 전라남도, 합평군, 전남골프협회  
문의전화 | 061-320-7700, 7777

## 나물 캐는 아낙의 모습에서 따스한 봄기운이...



김은영의 '그림 생각'

◎ 속

봄은 어디까지 왔을까? 해마다 이 즈음이면 확신하지만 “봄은 땅 밑에서부터 오고 가을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봄은 겨우내 추위를 견뎌내고 땅을 ‘우욱’ 뚫고 올라온 ‘속’이 자란 만큼 가까워지는 듯하다. 봄은 무엇인가를 땅에 심고 싶고, 캐고 싶게 한다. 내 마음에도

농부의 마음처럼 캐고 싶은 본능이 생긴 건지, 지난 주말 다녀온 시골 밭두렁 사이 고개 내민 어린 쑥 앞에서 마냥 다급해졌다.

기념비적인 자화상으로 이름난 공재(恭齋) 윤두서(尹斗緒·1668~1715)도 벼슬길에서 소외되어 해남으로 낙향한 뒤 농심에 젖었을까, 공재가 해남 녹우당에서 생활하면서 그린 풍속화는 여섯 점 가량으로 그 작품들에는 농촌의 자연과 함께 하는 삶에 보내는 그윽한 시선이 있다. 공재의 ‘채에도(採艾圖)’는 쑥을 캐는 두 여인의 모습을 담은 작품으로 화면 전체에서 푸릇한 봄기운이 느껴진



윤두서 작 '채에도'

다. 망태기와 칼을 든 여인은 허리를 굽혀 막 쑥을 캐려하고, 그 옆 여인은 뒤돌아보며 쑥을 찾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먼 산과 왼쪽으로 날아가는 한 마리 제비가 무한한 공간에 활력을 준다.

공재는 조선 후기 풍속화의 태동을 예고하는 가장 중요한 작가로 꼽힌다. 특히 사대부 출신으로서 민중의 삶, 일하는 여성을 직접 회화적 대상으로 포착했던 것은 당시로서는 과격적이었다. 인간 삶에 대한 애정이 없었던들 인간사(人間事)를 이토록 예술향 드높게 구현하기는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공재가 있었기에 조영석, 김두량, 강희언, 김홍도로 이어지는 ‘조선적 양식’의 풍속화가 후일 화려하게 만발했다.

아직은 텅 빈 들녘이지만 하루가 다르게 따스해진 봄 햇살에 천지가 봄 향기로 가득해지면 나물 캐는 여인들의 풍경도 그림처럼 등장할 것이다. 봄은 어느새, 이만치 우리 곁에 와 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학자〉

## 빛의 만평

- 김종두



‘초 박빙’ 업살이 아닌가 보다